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윤이* 황혜정**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Verbal Expression Ability on Their Prosocial Behaviors

Jung, Yoon Yee Hwang, Hye Jung

본 연구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9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만 4세반 유아 44명과 만 5세반 유아 42명, 총 84명이다. 유아의 언어표현력은 장영애(1981)가 만 3-5세 수준에 맞게 제작한 언어표현능력 도구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김영옥(2003)이 개발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PBSYC)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표현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의 하위 요인 중 내용의 일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언어표현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또래를 배려해 줄 수 있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유능하다고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언어를 지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언어표현능력, 친사회적 행동

* 제1저자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 tjnin@nate.com
**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jinhwang@kgu.ac.kr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 상호적 관계를 맺는 사회적 존재이다. 이는 인간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곳은 가정이다. 유아는 가정 안의 부모, 형제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대상을 또래, 교사, 이웃 등으로 확대시켜 나간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형제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정의 역할이 줄어들어 따라 유아기의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유아에게 또래는 사회적 성격 발달 및 정서적, 인지적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송명자, 2008). 유아는 또래와 서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시 및 비판을 하는 성인과의 상호작용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뿐 아니라 상호성과 동등성에 의해 협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도덕적인 발달을 돕게 된다. 이처럼 또래관계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다(이은해, 1999).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게 되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많아지게 되며, 이는 유아에게 있어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기에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의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아기의 사회성 발달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Maccoby와 Jacklin(1980)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중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인 도움주기, 나누어 갖기, 협동하기, 위로하기, 기부하기, 양보하기 등 사람들 사이의 우호적 관계를 촉진시키거나 유지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의미한다(임연진, 안효진, 2008).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유아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 상태를 추론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감정이입, 문제 해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달하는데, 4~6세경부터 이타적 행동이 증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절정에 이른다(Bar-Tal, 1982). 즉, 자기중심적인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탈중심화 되고, 가정에서 학교로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 결과 타인이 어떠한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도움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 유아의 사회적 행동 연구자들이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자리 잡게 되었고, 전쟁과 폭력을 포함한 많은 부도덕적 결과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함으로써 줄어들거나 제거될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되었다.

한편,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는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발달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다.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도 한다. 이는 유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감에 있어 언어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며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이차숙, 2004).

언어능력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 의견 등을 문자, 구어, 수화 등의 체계가 있는 상징적 기호로 표현하거나, 그렇게 표현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오영주, 2008). 유아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 느낌을 한데 모아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데(문선영, 2001), 그 과정에서 수용언어와 표현언어가 발달되어 언어능력이 발달한다. 유아는 12~13개월 혹은 그 이전부터 수용언어능력이 먼저 발달되기 시작하여(Shaffer, 2002), 3세경에는 표현언어능력이 문장수준으로 발달하고 문법을 습득하는 수준으로 향상되며, 4세경에는 수용언어능력을 토대로 표현언어능력이 거의 습득되면서 자신의 사고 및 학습 등을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Erika, 2001). 언어표현능력은 대화 상대 혹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야기 하고,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Lowenfeld & Brittain, 1975). 문형순(1996)은 언어표현능력은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일관성, 시간의 순서를 고려하여 자신의 감정 및 느낌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단어와 문장의 재배치를 통하여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 인간은 언어로 인해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언어표현능력이란 타인과의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서 대화 상대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장영애, 1994) 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한 문장구조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능력(곽선희, 2006)이라고 할 수 있다.

박기숙(2001)은 유아의 언어능력이 또래관계나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또래관계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언어능력이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 등을 언어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술을 익혀 타인과의 욕구를 조절한다. Hutchby(2005)의 연구에서도 언어능력이 높고 낮음이 유아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나 사회적 행동에서 인정받는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고 놀이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였다. 또한, 한애희(2009)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용언어능력이 친사회성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한편, 언어표현능력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서미옥, 2003). 안경숙(1993)은 언어표현능력의 발달과 사회성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스스로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 본 유아일수록 언어적 기술 수준이 점차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련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또래나 성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김기예와 이소은(2007) 역시 언어표현능력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정계숙(2010)의 연구에서는 언어표현능력에 따른 또래 유능성을 비교하였는데, 또래 유능성은 언어표현능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언어표현능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높은 언어표현능력을 가진 유아는 조리 있는 언어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으로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증가되므로 또래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아들의 갈등상황 해결이나 문제해결능력은 대인관계의 시작이고 그것을 유지함에 있어서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이다. 최근에는 유아의 긍정적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을 조장하기 위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유아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결과와 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더 발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 언어 이해력과 사회적 활동성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며 또 언어표현능력과의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박경선, 2006; 이현주, 2000). 김난실(2004)의 연구에서는 언어표현능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언어표현능력이 높은 유아가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또래들에게 협조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또한 오영주(2008)의 연구에서도 표현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즉, 단순히 말을 잘하고 단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문장을 현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유아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또래에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그것으로 또래와의 교감을 이끌어내는 유아가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친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언어능력 및 언어발달과 언어표현능력, 그리고 사회성 혹은 또래유능성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언어능력이란 유아가 사용하는 단어, 상징적 의미 등을 모두 내포하는 것이고, 언어표현능력이란 말 그대로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사회성 역시 유아가 생활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

를 포괄하는 것인데,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친근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포괄적인 요인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며 친사회적 행동이 더 발달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언어능력 중 언어표현능력과 사회성 중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언어표현능력 중 어떤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 요인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언어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교사가 유아의 언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표현능력의 하위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에 위치한 9개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5세 유아 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구분은 <표 1>과 같다. 총 86명의 유아 중 4세 유아가 44명(51.2%), 5세 유아가 42명(48.8%)이었으며, 남아와 여아가 각각 43명(50.0%)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구분

구분	4세	5세	남	여	전체
빈도 (%)	44 (51.2)	42 (48.8)	43 (50.0)	43 (50.0)	86 (100.0)

2. 검사 도구

1) 언어표현능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표현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장영애(1981)가 만 3-5세 수준에 맞게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 어휘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 표현력 부분만을 발췌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 표현력은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와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의 두 과제로 측정된다.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에서는 유아가 그림을 보고 응답하여 기록한 것을 연구자가 전사하여 분석하는데, 이를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일치로 나누어 채점한다. 단어 수는 각 항목의 그림을 보고 유아가 말한 문장 내에서의 단어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2점, 5~9개인 경우 1점, 0~4개인 경우 0점으로 채점한다. 문장 수는 각 항목 당 문장의 수가 단문인 경우 1개의 문장으로, 중문이나 복문인 경우 2개의 문장으로 계산해서 총 5개 항목의 평균 문장 수를 산출한다. 평균 문장 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2점, 1이상~2미만인 경우에는 1점, 0~1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한다. 내용의 일치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부엌그림은 4가지, 빨래하는 날은 3가지, 할머니 이야기는 3가지, 공 잡기는 3가지, 그네뛰기는 2가지의 보기를 제시한 후 내용이 일치하면 각 1점씩 채점한다(장영애, 1981). 점수가 높을수록 내용의 일치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신뢰도(Cronbach's α)는 단어 수 .89, 문장 수 .82, 내용의 일치 .73, 소계 .92였다.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역시 마찬가지로 2가지 주제에 대해 4장의 그림을 각각 보여주고 이야기를 꾸며보게 한 후 유아의 이야기를 연구자가 기록한 것을 토대로 단어 수, 문장 수, 내용의 연계성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단어 수는 각 항목의 그림을 보고 유아가 말한 문장 내에서의 단어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2점, 5~9개인 경우에는 1점, 0~4개의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한다. 문장 수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와 같은 방법으로 단문인 경우 1개의 문장으로, 복문이나 중문인 경우 2개의 문장으로 계산해서 총 4개 항목의 평균 문장 수를 산출한다. 평균 문장수가 1.5이상인 경우에는 2점, 평균 문장 수가 1이상~1.5미만인 경우 1점, 평균 문장 수가 0~1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한다. 내용의 연계성은 주제 당 4개 항목에서 내용이 일치할 경우는 1점,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한다(장영애, 1981). 점수가 높을수록 내용의 일치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의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신뢰도(Cronbach's α)는 단어 수 .81, 문장 수 .86, 내용의 일치 .91, 소계 .88이었으며, 언어표현력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3이었다.

2) 친사회적 행동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하여 김영옥(2003)이 개발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PBSYC)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의미에 보다 적절한 도움주기(9문항), 주도적 배려(6문항), 나누기(3문항), 감정이입 및 조절(4문항)의 4개 요인, 22문항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평가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친사회적 행동 평가를 위하여 연구자는 교사들이 검사도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 및 문항에 대한 설명서를 제시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상황을 관찰한 후 지침에 따라 유아의 놀이 행동 및 성향에 대하여 평정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하위 요인인 도움주기 .83, 주도적 배려 .81, 나누기 .81, 감정이입 및 조절 .73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안산시에 위치한 유치원 다섯 곳과 어린이집 한 곳, 수원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세 곳에서 표집 되었다. 각 기관별로 만 4세 반과 만 5세 반을 한 반씩 선정하여 각 반에 있는 유아의 일련번호에 따라 만 4세 유아 5명, 만 5세 유아 5명을 연구자가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이 때 남아와 여아의 수를 동일하게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에게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연구에 참여함을 알리고 부모의 동의를 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담임교사가 검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한 반의 유아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담임교사에게 무리이므로 한 반에서 5명의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검사는 교실 내에서 자유놀이시간에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교사에게 언어표현능력 검사 방법과 친사회적 행동 평가 방법에 대해 전사지 및 그림도구를 제공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검사 도구의 용도 및 평가 척도,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언어표현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적인 통계치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차이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의 언어표현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기술통계치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기술적인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에 의하면, 그림보고 이야기꾸미기 점수가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꾸미기 점수보다 높았다. 하위 요인별로 보았을 때도 단어 수와 문장 수 점수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가 높았다.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을 연령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의 단어 수($t=2.18, p<.05$)와 문장 수($t=2.42, p<.05$),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의 단어 수($t=2.30, p<.05$) 하위 요인에서만 만 5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언어표현능력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의 전체 점수($t=2.55, p<.05$)뿐만 아니라 단어 수($t=2.07, p<.05$), 문장 수($t=2.82, p<.01$), 내용의 일치($t=2.17, p<.05$) 하위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표현능력이 높았다.

<표 2> 언어표현능력 평균 점수와 차이 분석 결과

구	분	전체 <i>M(SD)</i>	만 4세 <i>M(SD)</i>	만 5세 <i>M(SD)</i>	<i>t</i>	남아 <i>M(SD)</i>	여아 <i>M(SD)</i>	<i>t</i>
그림 보고 이야기 꾸미기	단어 수	.89 (.60)	.75 (.53)	1.03 (.65)	2.18*	.76 (.61)	1.02 (.58)	2.07*
	문장 수	1.22 (.36)	1.13 (.32)	1.31 (.38)	2.42*	1.11 (.32)	1.32 (.37)	2.82**
	내용의 일치	1.36 (.50)	1.31 (.49)	1.40 (.50)	.89	1.24 (.55)	1.47 (.42)	2.17*
	소계	3.46 (1.32)	3.19 (1.16)	3.75 (1.42)	1.99	3.11 (1.32)	3.81 (1.23)	2.55*
그림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단어 수	.73 (.55)	.60 (.57)	.87 (.51)	2.30*	.62 (.54)	.85 (.54)	1.99
	문장 수	.92 (.68)	1.00 (.69)	.83 (.66)	-1.14	.88 (.69)	.95 (.67)	.48
	내용의 연계성	1.48 (.69)	1.47 (.67)	1.50 (.72)	.23	1.43 (.70)	1.53 (.68)	.70
	소계	3.13 (1.63)	3.07 (1.68)	3.20 (1.60)	.38	2.93 (1.69)	3.34 (1.58)	1.16
언어표현능력 합계		6.60 (2.65)	6.26 (2.59)	6.95 (2.70)	1.21	6.04 (2.69)	7.15 (2.53)	1.97

* $p<.05$, ** $p<.01$

<표 3>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3.31로 대상 유아의 친사회성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중 접근 시도하기(M=3.45)와 의사소통(M=3.44), 지도성(M=3.37) 행동의 순으로 친사회성이 높았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연령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 전체 점수($t=3.75, p<.001$)와 도움주기($t=3.09, p<.01$), 주도적 배려($t=2.55, p<.05$), 감정이입 및 조절($t=3.93, p<.001$) 하위 요인에서 만 5세 유아가 4세 유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점수($t=3.36, p<.01$)와 도움주기($t=2.95, p<.01$), 주도적 배려($t=3.07, p<.01$) 하위요인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표 3> 친사회적 행동 평균 점수와 차이 분석 결과

구 분	전체 <i>M(SD)</i>	만 4세 <i>M(SD)</i>	만 5세 <i>M(SD)</i>	<i>t</i>	남아 <i>M(SD)</i>	여아 <i>M(SD)</i>	<i>t</i>
도움주기	3.28 (.50)	3.12 (.43)	3.44 (.53)	3.09**	3.13 (.46)	3.43 (.51)	2.95**
주도적 배려	3.21 (.55)	3.07 (.40)	3.37 (.64)	2.55*	3.04 (.46)	3.39 (.59)	3.07**
나누기	3.14 (.61)	3.02 (.53)	3.27 (.67)	1.96	3.09 (.67)	3.19 (.55)	.71
감정이입 및 조절	3.17 (.53)	2.97 (.43)	3.38 (.55)	3.93***	3.07 (.58)	3.27 (.46)	1.75
계	3.31 (.41)	3.16 (.31)	3.47 (.46)	3.75***	3.17 (.39)	3.46 (.40)	3.36**

* $p<.05$, ** $p<.01$, *** $p<.001$

2.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구 분	도움주기	주도적 배려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친사회적 행동 합계
단어 수	.31**	.26*	.24*	.26*	.33**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33**	.37**	.27*	.28**	.40***
내용의 일치	.40***	.44***	.27*	.38***	.50***
소계	.38***	.39***	.28**	.34**	.45***
단어 수	.26*	.28**	.17	.20	.32**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16	.14	-.02	-.05	.17
내용의 연계성	.22*	.14	.09	-.03	.19
소계	.25*	.21	.09	.04	.26*
언어표현능력 합계	.34**	.32**	.19	.19	.38***

* $p < .05$, ** $p < .01$, *** $p < .001$

전체적으로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 = .38, p < .001$). 이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언어표현능력은 도움주기($r = .34, p < .01$), 주도적 배려($r = .32, p < .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누기 및 감정이입 및 조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는 언어표현능력이 높을수록 도움주기와 주도적 배려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표현능력 중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점수는 도움주기($r = .38, p < .001$), 주도적 배려($r = .39, p < .001$), 나누기($r = .28, p < .01$), 감정이입 및 조절($r = .34, p < .01$),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전체 점수($r = .45, p < .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유아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표현력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주기, 주도적 배려,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과제 점수는 도움주기($r = .25, p < .05$) 하위 요인과 친사회적 행동 전체 점수($r = .26, p < .05$)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주도적 배려와 나누기, 그리고 감정이입 및 조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유아는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표현력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주기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언어표현능력의 여러 변인들이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표현능력의 하위 요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수가 .50 이하였고, 공차한계(tolerance)가 .40~.67이었으며, 상승변량(VIF)이 1.43~2.4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회귀식이 지닌 가정들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5>에 의하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내용의 일치($\beta=.53, p<.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약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내용의 일치 표현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i>b</i>	β	<i>t</i>
그림	단어 수	-.11	-.16	-.97
보고 이야기	문장 수	.09	.08	.48
꾸미기	내용의 일치	.44	.53	3.52**
그림	단어 수	.17	.23	1.66
보고 연계성	문장 수	-.06	-.10	-.74
있는 이야기	내용의 연계성	-.04	-.07	-.53
꾸미기				
constant			2.70	16.65***
$R^2 = .29, F = 5.28^{***}$				

** $p<.01$, *** $p<.001$

1) 언어표현능력이 도움주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도움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6 참조),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내용의 일치($\beta=.35, p<.05$)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약 17%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의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내용의 일치 표현력이 도움주기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6> 언어표현능력이 도움주기에 미치는 영향

		<i>b</i>	β	<i>t</i>
그림	단어 수	.02	.02	.12
보고 이야기	문장 수	.02	.01	.08
꾸미기	내용의 일치	.35	.35	2.15*
그림	단어 수	.09	.10	.68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문장 수	-.08	-.11	-.74
꾸미기	내용의 연계성	.05	.07	.50
constant		2.70		12.70***
$R^2 = .17, F = 2.75^*$				

* $p < .05$, *** $p < .001$

2) 언어표현능력이 주도적 배려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주도적 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7 참조),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내용의 일치($\beta = .48, p < .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약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내용의 일치 표현력 점수가 주도적 배려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7> 언어표현능력이 주도적 배려에 미치는 영향

		<i>b</i>	β	<i>t</i>
그림	단어 수	-.24	-.26	-1.53
보고 이야기	문장 수	.25	.16	.95
꾸미기	내용의 일치	.53	.48	3.12**
그림	단어 수	.25	.24	1.72
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문장 수	-.07	-.08	-.57
꾸미기	내용의 연계성	-.09	-.12	-.85
constant		2.42		10.91***
$R^2 = .25, F = 4.29^{**}$				

** $p < .01$, *** $p < .001$

3) 언어표현능력이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8 참조), 유아의

나누기 행동에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표현력과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표현력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8> 언어표현능력이 나누기에 미치는 영향

		<i>b</i>	β	<i>t</i>
그림	단어 수	.05	.04	.24
보고 이야기	문장 수	.15	.09	.47
꾸미기	내용의 일치	.28	.23	1.37
그림	단어 수	.12	.11	.72
보고 연계성	문장 수	-.24	-.27	-1.77
있는 이야기	내용의 연계성	.05	.05	.35
constant			2.61	9.88***
$R^2 = .12, F = 1.86$				

*** $p < .001$

4) 언어표현능력이 감정이입 및 조절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감정이입 및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9 참조),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내용의 일치($\beta = .52, p < .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약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유아는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내용의 일치 표현력이 감정이입 및 조절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9> 언어표현능력이 감정이입 및 조절에 미치는 영향

		<i>b</i>	β	<i>t</i>
그림	단어 수	-.04	-.05	-.29
보고 이야기	문장 수	-.02	-.01	-.07
꾸미기	내용의 일치	.55	.52	3.38**
그림	단어 수	.24	.25	1.76
보고 연계성	문장 수	-.22	-.28	-1.97
있는 이야기	내용의 연계성	-.14	-.18	-1.31
constant			2.71	12.80***
$R^2 = .25, F = 4.44**$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보면 언어표현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표현능력의 하위 요인인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의 내용의 일치, 문장 수, 단어 수,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과제 중 단어 수에서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김순덕(1983)의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친사회적 성향이 높은 유아일수록 언어능력이 높아 새로운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단어 수와 어휘 수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각 요인별로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언어표현력은 도움주기, 주도적 배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누기와 감정입 및 조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언어표현능력이 높을수록 도움주기, 주도적 배려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표현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언어 표현 수준이 낮은 유아일수록 부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언어수준이 낮은 유아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 놓였을 때 언어를 사용하기보다 신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김난실,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들이 낮은 유아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이고, 언어능력이 낮은 유아일수록 또래 관계 및 사회성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김성은, 2007; 김혜연, 2008; 이현주, 2000)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오영주(2008)의 연구에서는 표현언어능력이 높을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표현언어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놀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또래들에게 협조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친사회성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김난실(2004)의 연구에서도 언어표현능력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언어표현능력이 높은 유아가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또래들에게 협조적이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언어표현 수준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중 내용의 일치 요인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일한 연구 결과는 없었으나, 김영이(2005)의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이 발달된 유아일 수록 자신의 개인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또래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대인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말을 잘하고 어휘가 뛰어나고 말을 유창하고 유능하게 잘 하는 유아보다는 상황 설명이 능숙하고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구사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조리 있는 언어표현을 할 수 있는 유아가 친사회적 성향에 더욱 효과적인 언어 표현 기술을 구사하여 또래와의 관계에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전달하고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곧, 자신의 상황 및 생각, 느낌,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 조절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조건을 활용하여 도움을 주며, 또래와의 의사소통에 능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또래를 배려해 줄 수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래에게 접근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유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언어표현능력의 하위요인 중 내용의 일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보다 유아가 또래와 상호작용을 할 때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어 선택을 하여 표현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 수용하여 또래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또래 사이에서 갈등 상황을 초래하는 빈도를 낮춰주고 또래에게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 및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와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과제를 보면,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 과제 능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더 많은 관계가 있었고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과제에서 결과의 차이가 생긴 것은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와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난이도 때문인 것 같다. 그림을 보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꾸미는 과제가 만 4-5세 유아에게 적절하게 언어표현을 하도록 한 데 비해서, 그림보고 연계성 있는 이야기 꾸미기 과제는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 단어 수와 문장 수가 오히려 적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설명력도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분석에서는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항목이 많았으나,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요인들이 영향력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내용의 일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뚜렷해서 다른 요인들이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친사회적 행동 및 언어표현능력은 변인이 다양하고 환경 및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는 연구대상 표집 지역을 포괄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표현능력 도구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미게 하여 유아가 이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연계적으로 내용 구성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단어 위주의 검사가 아니라 이야기 꾸미기를 통해 언어표현력을 측정하므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언어표현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개발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현 시대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명의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였기 때문에 교사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추후에 연구를 실행할 때 관찰자 및 검사자를 통일하여 좀 더 신뢰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유아의 언어표현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주 변인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를 알아본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언어표현능력이란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며, 유아와 또래와의 관계형성 및 친근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회성이라는 포괄적인 요인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언어능력 중 언어표현능력과 사회성 중 친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유아의 언어표현능력의 하위 요인 중 그림보고 이야기 꾸미기에서 내용의 일치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유아기에 습득하게 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발현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교사가 유아의 언어를 지도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곽선희(2006).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용건 전달하기 훈련이 정인지체아동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에, 이소은(2007).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능력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상호작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1), 167-197.
- 김난실(2004). 만 2세반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은(2007). 유아의 언어능력에 따른 또래 간 요구 전략 및 반응 기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덕(1983).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의 측면에서 본 5, 6세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옥(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4(5), 105-118.
- 김영이(2005).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한 또래 토의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연(2008). 유아기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기 언어능력, 사회·정서적 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영(2001). 이야기 꾸미기 활동에서의 협동학습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형순(1996). 교사의 발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과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선(2006). 유아의 가정환경과 언어능력 및 사회성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숙(2001). 인기유아의 사회적 언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옥(2003). 대쌍협력 상황에서 나타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과제수행력. **아동학회지**, 24(3), 15-26.
- 송명자(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경숙(1993). 유아의 인지양식에 따른 언어표현의 차이.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주(2008). 유아의 언어능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차숙(2004). **유아 언어교육의 이론적 탐구**. 서울: 동문사.
- 이현주(2000). 외동아와 형제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성간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연진, 안효진(2008).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친사회적 행동 수준에 따른 놀이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1), 1-14.
- 장영애(1981). 가정환경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1994). 유아의 언어 능력과 환경변인 간의 관계분석2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정계숙(2010). 만 2-3세 유아용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타당화 예비 연구. **유아교육연구**, 30(6), 223-244.
- 한애희(2009). 유아의 기질,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Tal, D. (1982).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A cognitive-learning approach. *Developmental Review*, 2, 101-124.
- Erika, H. (2001). Language development (2nd ed.). Wadsworth. **언어발달**.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Hutchby, I. (2005). Children's talk and social competence. *Children & Society*, 19, 66-73.
- Lowenheld, V., & Brittain, W. L. (1975).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 re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 Mccabe, P. L., & Meller, P. 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social competence: How language impairment affects social growth. *Psychological in the Schools*, 41(3), 313-321.
- Shaffer, D. R. (2002).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7th ed.). London: Belmon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verbal expression on their prosocial behaviors. The subjects were 44 four-year-olds and 42 five-year-olds in nine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ocated in Gyeonggi-do. The instruments used were Verbal Expressiveness Inventory(Jang, 1981) and PBSYC for teachers(Kim, 2003).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Concerning the correlations between their verbal exp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those who had better verbal expression showed more prosocial behavior.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factors of verbal expression and those of prosocial behavior were inconsistent to some extent, bu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overall. So it could be said that a better verbal expression leads to better prosocial behavior. From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verbal expression on prosocial behavior, it can be concluded that young children who have better verbal expression are more excellent at building a good peer relationship, helping their peers, being considerate, making themselves accessible, sharing their own belongings with peers and regulating their own emo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assis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to provide young children with a variety of educational activities geared toward improving verbal expression to improve their prosocial behaviors. Also,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eachers to improve the prosocial behavior of young children in diverse ways.

▶*Key Words* : verbal expression, prosocial behavior

논문투고 2012. 10. 15.
수정원고접수 2013. 09. 24.
최종게재결정 2013. 10. 24.